

신선한 소재·파격 연출... K호러 '흥행 질주'

여름 시즌을 한참 앞두고 공개된 'K호러물'들이 때 이른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 장르물과 로맨스물이 장악한 콘텐츠 시장에 호러물이 신선한 소재와 파격적인 연출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젊은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3일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기리고'는 수위 높은 잔인한 장면들과 몰입감 높은 전개로 입소문을 타며 공개 첫 주 넷플릭스 비영어 쇼 글로벌 4위라는 깜짝 성적을 거뒀다.

소원을 들어주는 앱 '기리고'에 갇힌 저주를 피하려는 고등학생 5인방의 사투를 그린 이 작품은, 배우 전소영·강민아·현우·박은서·이효제·백선호 등 신인 위주의 캐스팅에도 박은서 감독의 총출동 연출과, 스마트폰 앱이라는 현대적 소재, 무당 등 한국식 오컬트 요소 등이 맞물리며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극장에선 영화 '살목지'가 개봉 20여 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몰이 중이다. 공포 영화가 200만 고지를 넘긴 것은 2018년 개봉한 '곤지암' 이후 8년 만이다. 이 작품은 로드뷰(거리 보기) 서비스 소속 직원들이 거리 촬영을 위해 살목지라는 저수지에 들어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드라마 전재엽 고 투어의 주역 김혜윤을 비롯해 이종원·김준한·김영성·오동민·윤재찬·장다아 등의 호연과, 실제 공포 마니아들 사이에서 유명한 살목지 괴담을 소재로 활용해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주목할 점은 두 작품 모두 '여름 계절 한정'이라고 평가받는 공포 장르를 택하면서도 업계의 통상적인 문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목지'는 한여름이 아닌 봄 시즌에 극장을 찾았고, '기리고'는 연중 언제든지 스트리밍으로 접할 수 있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을 통해 작품을 공개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서서히 날씨가 풀리고 공포물에 대한 관객의 갈증이 생겨나던 시점에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나와 호응을 얻은 것"이라며 "비주류 장르인 공포물도 완성도만 있다면 어느 시기에 나와도 흥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두 작품은 시대 흐름을 반영한 소재를 활용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스마트폰 앱

과 로드뷰 서비스 같은 현재의 일상 플랫폼을 공포의 매개로 끌어들이는 젊은 관객의 공감을 끌어낸 것이다.

특히 두 작품은 10~30대 사이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단순 관람을 넘어선 체험형 콘텐츠로 떠오르며 인기를 더욱 높이고 있다. '기리고' 시청자들은 극 중 저주의 매개인 '기리고' 앱이 실제 앱 스토어에 출시되자 이를 직접 다운로드해 사용해 본 뒤 후기를 공유하고 있다. '살목지' 팬들도 영화 촬영지인 충남 예산의 살목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영화관에서 측정한 심장박동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공포를 높이처럼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신인 배우들의 약진도 또 다른 흥행 요인으로 꼽힌다. '기리고'의 경우 오디션을 통해 연기력 좋은 신인 배우 위주로 주연급 라인업을 채웠고, '살목지' 역시 탄탄한 티켓 파워를 지닌 톱스타 대신 공포 장르에는 처음 도전하는 김혜윤과 이종원, 윤재찬, 장다아 등 요즘 떠오르는 신예들을 활용해 대중에게 낯하지 않은 새로운 얼굴을 소개했다. '기리고' 연출을 맡은 박은서 감독은 "대중에게 너무 익숙한 얼굴보다는 신선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배우들을 찾으려 했다"며 "작품이 잘 돼서 '여고괴담'처럼 신인 배우들이 더 많이 빛을 볼 수 있는 등용문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기리고'와 '살목지'는 한국적 요소가 가미된 K호러물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매력도 높은 편이다. '기리고'의 경우 무당 등 한국적 샤머니즘을 작품에 녹여냈고, '살목지'는 한국 전통 귀신 중 하나인 물귀신을 소재로 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도 새로움을 더한다.

하재근 평론가는 "최근 OTT라는 글로벌 유통망이 생기면서 한국이 쌓아온 공포물 제작 노하우가 세계적으로 빛을 발하게 됐고, 해외 관객들도 이국적인 콘텐츠를 개방적으로 찾아보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좋은 콘텐츠를 꾸준히 공급한다면 한국적 공포물이 세계적으로 더 크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변한 공식 깨고 '틈새 공략' 적중
현대적 소재·무당 역은 '기리고'
공개 첫 주에 넷플서 인기 폭발
영화 '살목지' 개봉 4주 만에 200만
'곤지암' 이후 8년 만에 대기록



넷플릭스 '기리고'의 한 장면. 넷플릭스



소박스

영화 '살목지' 한 장면.



핑크퐁 '상어 가족' 10년째 1위 키즈송 최강자 자리 굳혔다

'아기상어 푸루루 푸루~'라는 중독적인 후렴구로 유명한 더핑크퐁컴퍼니의 인기 곡 '상어 가족'이 10년째 키즈송(어린이 노래)의 제왕 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T 지니뮤직이 올해 1월1일부터 4월27일까지 키즈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어 가족'은 '바나나차차(뽀로로2위)'와 '티니핑 100'(캐치! 티니핑3위) 등을 제치고 1위를 지켰다.

2016년 발매된 '상어 가족'은 이듬해인 2017년 연간 키즈송 1위에 등극한 이래 올해까지 10년째 내리 정상을 유지 중이다.

'상어 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의 대표 캐릭터 아기 상어에 기반한 노래다.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후렴구와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동심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 노래에 기반한 '베이비 샤크 댄스'는 유튜브 사상 최초로 100억 뷰를 달성한 데 이어, 이날 현재 168억 뷰 이상을 기록하며 유튜브 모든 영상을 통틀어 압도적인 조회수 1위를 기록 중이다.

'상어 가족'의 영어 버전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20주 연속 진입과 영국 오피셜 차트 '최다 스트리밍 뮤직비디오' 1위 등의 진기록도 썼다.

가족 사랑을 담은 경쾌한 뽀로로 캐릭터송 '바나나차차'는 지난해와 동일한 2위를 차지했고, 유아들에게 신드롬급 인기를 누리던 캐치! 티니핑(티니핑) 캐릭터들이 100가지가 나오는 '티니핑 100'은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3위를 기록했다.

올해 어린이가 가장 사랑한 키즈송 1~100위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핑크퐁, 뽀로로, 티니핑 세 지식재산권(IP)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핑크퐁(더핑크퐁컴퍼니의 베베핀 합산) 26곡, 뽀로로 21곡, 티니핑 15곡으로 이 세 IP 관련 노래가 100곡 가운데 총 62곡에 달했다.

핑크퐁 관련 노래는 '상어 가족' 외에도 '경찰차'(5위), '티라노사우루스'(8위), '소방차'(12위) 등 다수가 상위권에 올랐다.

캐릭터송 신봉 강자로 떠오른 티니핑은 '티니핑 100'을 비롯해 '슈팅스타 캐치! 티니핑 주제곡'(6위), '열쇠티니핑송'(13위), '디지털티니핑송'(19위)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고전을 통해 만나는 현대인의 치인치세 해법

治人治世

선미디어

황중택 칼럼 신은고지신 시리즈 1
고전, 당신의 생각을 바꾼다



334쪽 | 15,000원

황중택 칼럼 신은고지신 시리즈 2
고전, 당신의 행동을 바꾼다



336쪽 | 14,000원

황중택 칼럼 신은고지신 시리즈 3
고전,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324쪽 | 14,000원

화제의 책
★★★★
언론인 출신
인문학자의
고전 해석 통한
사회적 문제점
해법 제시